

법률복지



KOREA FAMILY LEGAL SERVICE CENTER



오, 감격! 감격!

- 우리 후손이 어디를 가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일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 조력 · 소송구조를 해드립니다.

- 상담방법 : 면접, 전화, 서신, 자상, 출장, 온라인상담
- 상담안내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4층 전화 : 2697-0155, 3675-0142-3/ 팩스 : 3675-0175
전화 : 2646-1611 (교육원)

www.lawqa.or.kr / E-mail: lawqa@chol.com

2021년 정기총회 Zoom 화상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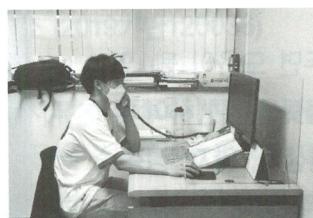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본 상담원의 2021년 정기총회를 지난 3월 11일 오후 4시에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0년 감사보고와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고, 상담원 정관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 감사의 선출이 이루어졌다.

이번 총회에서 경수근(변호사), 김경희(도서출판 다섯수레 주간), 민경도(변호사,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 박현순(방송인), 송상현(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정호(변호사, 전 법무부장관), 양정자(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이교림(변호사), 이재연(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전성연(전 이화여대법대동창회장), 전원숙(전 재경전남여중고동창회장), 정안지(광평하우징&인더스트리 대표), 조애진(육아방송 이사장), 최금숙(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사가 연임되었고, 신임이사로 지영선(서울그린트리스트 이사장, 전 보스턴총영사) 운영이사가 선출되었다. 감사로는 김행자(주부), 노옥섭(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가 연임되었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 학기 중 법률구조기관 자원봉사 실시

본 상담원과 산학연대 협약을 맺고 있는 국민대학 법과대학의 재학생 중 리걸클리닉 소속 학생들이 2021학년도 1학기 동안 법률구조기관인 본 상담원에 서 정기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리걸클리닉은 전해정 법과대학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상담봉사와 법률문해교육을 하는 스터디활동으로 본 상담원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한 학기 동안 시간을 정해 매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법률구조의 역사와 의미, 상담원의 창설목적 등을 자료로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통해 배우고 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 캠페인 실시



상담원은 지난 5월 21일 지하철 5호선 목동역사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매년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과 협동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 유행으로 각 기관별로 실시하게 되었고, 상담원은 매주 월요일 출장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 상태인 목동역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향주 상담실장, 고은지 상담위원, 왕혜인·정민규 국민대 법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상담원 브로슈어를 배포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법률분쟁 예방을 위한 상담원의 법률구조활동과 교육사업 등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상담원 직원 재교육 - 통합예술심리 치료프로그램 실시



지난 5월 27일 상담원 2층 교육원에서 본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예술심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통합 예술심리치료는 미술, 음악, 영상,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이날 상담원들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 삶에 대한 에너지를 부여하고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